

2천년대 세계10위권 종합화학 그룹 대열에 환경친화적 품목 개발 확대

1988년 유화업계로서는 후발주자로 업계에 뛰어든 삼성종합화학은 뜻밖에 92년 유화업계에서는 최초로 수출 3억불을 돌파했다.

삼성은 주요 생산품목인 HDPE, LDPE, LLDPE, PP, 화성품 등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유화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고품질 첨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만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삼성종합화학은 회사 창립초기부터 화학연구소와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계속적인 연구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삼성이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던 LLDPE박막필름은 두께는 25%정도 줄이면서 기계적 특성과 물성은 오히려 기존 제품보다 뛰어난 장점이 있다.

기존에 중포장용 국내 LLDPE수요는 비료포대를 중심으로 약 1만3천톤 정도며 삼성종합화학의 LLDPE 제품은 기존 LDPE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필름가공시 1백90m까지 박막화해도 기존의 2백50m필름보다 우수한 인장강도, 충격강도 및 인열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은 이 제품을 사용해 가공업체가 별도의 가공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LDPE필름생산 설비를 일부 개조해, 박막화 LLDPE필름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연구를 통하여 1백60m까지 박막화가 가능한 원료를 개발, 일본·동남아 등지로의 수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은 또한 지난해 대산유화단지내 LLDPE공장이 국제 ISO인증기관인 영국의 BSI-QA로부

터 ISO 9002인증을 획득한 바 있고 HDPE, LDPE, PP 등 합성수지 공장이 3차 사후관리를 통과함으로써 합성수지 전 공장의 품질보증 및 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LLDPE공장은 상업가동 최단기간인 10개월만에 ISO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필요시 HDPE, MDPE를 생산할 수 있는 스윙프로세스를 채택하여 고객의 주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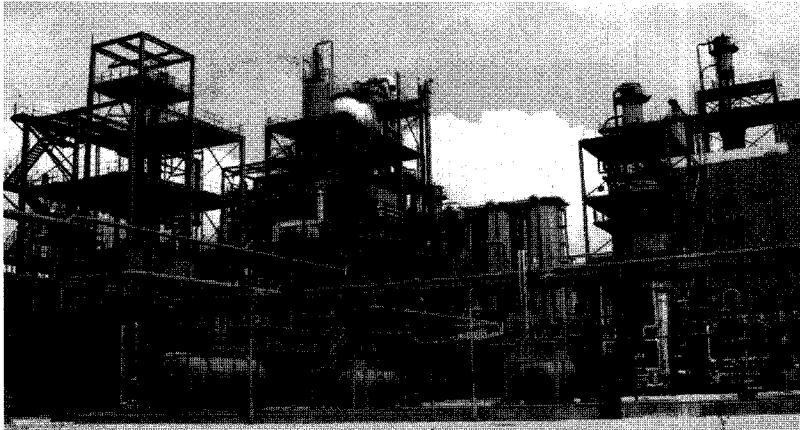
삼성종합화학은 ISO품질메뉴얼에 근거한 제품생산, 검사, 보관, 출하 및 소비자의 불만처리 등 품질보증 및 관리시스템으로 안정되고 균일한 고품질의 유화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제품에 대한 국제적 공인력을 향상시켰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의 확대에도 더욱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후발업체답게 빠르게 설비를 신증설하고 있는 삼성은 지난해에도 대폭 설비를 증설하고 빠른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지난 5월 대만의 치메이사와 삼성 SM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SM주식회사를 설립했다. 한편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내에 미국 레이시온사의 기술을



▲ 삼성종합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수지



▲ 지난해 영국 BSI-QA로부터 ISO 9002인증을 획득한 삼성중합화학 LLDPE공장 전경

도입, 800억원의 투자비를 투입해 올초 가동 예정으로 연산 200만톤 규모의 스타이렌 모노머 공장을 건설중인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새로 설립되는 삼성SM(주)를 통해 전량 대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삼성은 TPA사업에 참여할 뜻을 밝히고 지난 1월 TPA 공장 기공식을 갖기도 했다.

삼성중합화학이 이탈리아 테크몬트사의 기술을 도입, 건설하게 될 이 공장은 연산 25만톤 규모로서 총 투자비 2천5백억원, 연 인원 40만명이 투입되어 오는 97년 3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TPA공장의 건설로 국내외적으로 연평균 10%이상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원료의 수급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간 3억달러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삼성화학 소그룹은 96년도 매출목표를 95년도보다 12% 늘어난 2조8천억원으로 정하고, 2천년대 초까지 매출을 12조원으로 세계 10위권 종합화학 그룹으로 성장한다는 경영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삼성화학 소그룹(삼성중합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정밀화학, 삼성비피화학, 제일모직화성사업부, 삼성물산 화학사업부)은 지난 한해동안 매출액이 작년 1조 2천억원보다 배가 늘어난 2조8천억원을 올렸으며 96년에는 12%가 늘어난 2조8천억원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2천년대 초까지 삼성의 중장기 추진전략은 전략 제품인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SM(스타이렌 모노머), 빙초산

을 세계적 규모로 확대하고 석유화학 및 국내 사업중심에서 탈피, 정밀화학, 신소재, 가공사업 등으로 다각화하는 한편 중국 등 동남아에 비해 미주, 유럽, 서남아로 해외생산 기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2천년초 해외 매출비중).

중국 동남아 인도 등에 PTA·EG등 폴리에스터 원료사업과 유럽·미국에 신소재, 정밀화학 사업을 벌일 것이며, 해외업체와 전략적 제휴 추진(물산, 건설 등과 연계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현지 정부 기업 및 해외기업과의 제휴), 국제화에 맞춰 지역전문가 발굴, 해외MBA 등 인력양성 확대와 현지 전문인력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품질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비를 매출비의 3.2%, 인력비를 15%(700명, 박사급 130명) 책정했고 세계일류의 품질 서비스 확보, 주요제품 품질의 선진국 수준 달성(PE, PP, ABS), 화학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며 선진 환경기법 도입, ISO14000인증 획득 확대, 환경친화 품목 개발확대와 플라스틱 외관 및 포장의 디자인 차별화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기술개발 강화를 위해 96년 미국과 독일에 기술정보센터를 운영할 것과 전문인력 확보 및 연구기관과 제휴(중국, 러시아 등), 화학중앙연구소에서 기초, 기반 기술연구 및 중장기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시너지 제고를 위해 시간, 부문간, 인력교류 확대, 공무 환경안전, 영업·정보시스템 시너지제고, 공무·환경안전, 영업·정보시스템 기능별 협의체를 통한 운영 통합 등을 시행하게 된다. [K]

(표 1) 삼성화학 소그룹 신증설 계획

폴리에스터 원료공장	화성품	정밀화학·신소재
PTA: 현 85만톤/년 →200만톤/년(2000년까지)	SM: 현 20만톤/년 →44만톤/년(96년가동)	HPMC(건축용 첨가제): 현 2500톤/년 →5500톤/년(96년)
PX(40만톤/년), 벤젠(20만톤/년)		VAM(초산비닐·접착제원료): 15만톤/년 건설중(96년가동)
빙초산(PTA 원료): 현 20만톤/년 →35만톤/년(97년가동)		전자, 자동차용 신소재 개발, 생산확대
EG(에틸렌글리콜): 현 8만톤 규모에서 동남아지역에 20만톤 규모의 신규공장 건설 추진		